

2023년 정기토론회

서울노동권익센터 10년 다시보기

일시 | 2023년 12월 19일(화) 14:00~17:00

장소 | 공간채비(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카트 B113)

^^^
서울노동권익센터

〈개 요〉

- 제 목 : 서울노동권익센터 10년 다시보기
- 일 시 : 2023년 12월 19일(화) 14:00~17:00
- 장 소 : 공간채비(중구 서애로1길 11 층무로 헤센스카트 B113)
- 주 최 : 서울노동권익센터

〈프로그램 진행〉

	시 간		주요내용	진행
접 수	~14:00		참가자 등록 및 전시관람	
전 시	14:00~17:00	180'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 성과물 전시	
세션 1	14:00~15:00 (60')	5'	전체 일정 소개, 약속문 낭독	이정훈
		5'	인사말	이남신
		10'	발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10년	이철
		40'	토론: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함께 걸어온 길	이정훈/패널 3인
휴 식	15:00~15:10	10'	휴식	
세션 2	15:10~16:30	80'	토크콘서트: 노동센터에서 노동하기	이정훈/패널 4인
마무리	16:30~17:00 (30')	10'	이벤트 선정작 발표/상품 수여	이정훈/이남신
		10'	마무리 발표	이남신
		10'	사진촬영 및 정리	

〈목 차〉

서울노동권익센터 10년을 말한다 : 성과와 과제	3
----------------------------------	---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사무국장)

토론자 현장 녹취록	21
------------------	----

홍윤경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주진우 (前 서울시 노동특보)

박재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

토크콘서트 현장 녹취록	35
--------------------	----

이상훈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교육팀)

남운도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교육팀)

정기창 (서울노동권익센터 쉼터사업팀)

박정우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

정경화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허브팀)

〈발 표 문〉

서울노동권익센터 10년을 말한다
: 성과와 과제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사무국장)

서울노동권익센터 10년을 말하다 : 성과와 과제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사무국장)

목 차

서울노동권익센터
SEOUL LABOR CENTER

1. 들어가며
2. 서울시 노동센터의 핵심성과
3. 일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이해대변과 옹호
4. 일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5. 일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조직화 지원
6. 광역노동허브: 센터 간 협력 및 공동사업
7. 서울노동권익센터의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3

-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15년 개소 이후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서울시 노동기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단기간에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노동교육, 기획사업, 정책연구사업 등의 영역에서 노동권 보호 사업 기반 구축 및 실행 사업이 충실하게 진행되어 서울시 취약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광역 차원의 중간지원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용자를 포함해 대내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음(2차례의 종합성과평가)
- 노동시장의 극단적 분절화 속에서 노동단체(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과 정체성, 노동기본권 확장 운동 주체로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노동센터의 역할을 평가하고 이후 방향과 지속가능한 과제를 제시
- 노동센터의 역할과 기능: '조직화(organizing)', '이해 대변과 옹호(advocacy)', '서비스(service)'
- 광역노동허브기능: 센터 간 협력 및 공동사업

2. 서울시 노동센터의 핵심 성과

4

노동권익기관 서울모델 제도화와 확산

- 지방정부 노동행정 제도화의 한 축인 노동권익기관 역할과 기능, 사업체계와 방식 전국 확산

노동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 서울노동권익센터, 권역/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동노동자쉼터 등 다양한 노동자지원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프라 구축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대시민 서비스 확대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전개

민간노동네트워크 구축, 지역노동복지기반 강화

- 입체적인 네트워크로 사업모델 개발과 확산
-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노동센터

2. 서울시 노동센터의 핵심성과

5

촘촘한 노동복지 체계 구축: 노동센터 22개소

- 노동권익센터·노동자종합지원센터(22개소) 설치로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
-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 및 산재상담 실시

지자체 최초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등 서울노동자쉼터 5개소 운영

- 쉼터 개소 이후 총 누적 방문이용자수: 221,754명
- 휴식공간이자 건강·복지·노동권리 상담 및 구제의 공간

국내 최초, 감정노동자 치유 및 권리회복 공간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설립('18년)

- 290만 서울지역 감정노동자 전용 심리상담·치유프로그램 지원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 조직화, 이해대변과 옹호

3. 일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이해대변과 옹호

6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 조사와 연구

- 지역 노동시장 분석과 지역 노동정책 수립 기반 구축에 기여
- 노동센터가 연구조사를 통해 만난 일하는 서울시민 약 50,000여명
- 노동센터라 가능한 조사연구: 지금까지 잘 연구되지 않았던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기초적인 실태와 정책 수요 발굴
 - 숨겨진 노동자, 그림자 노동의 발굴: 청소·경비·음식, 도심제조업(봉제, 주얼리 등), 비정규·중소기업, 청년 및 청소년 알바, 감정노동(유통 등), 이동노동자, 건설일용직, 이주노동자, 마을버스, 택시, 택배, 여성비정규직, 가사노동, 가스안전점검검침,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노동 등
 -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필수노동자 등
 - 정책연구 성과를 서울시 정책과 노동센터 사업에 반영
 - 이동노동 종사자 지원연구(2015년) → 이동노동자쉼터 조성(2016년)
 -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마련과 유통부문 연구조사(2015년) → 감정노동보호 조례(2016년), 감정노동보호 종합계획(2016년), 감정노동보호센터 추진(2017년)

3. 일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이해대변과 옹호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 조사와 연구

7

- 정책연구 성과를 서울시 정책과 노동센터 사업에 반영
 - 서울시 봉제산업 노동자 건강안전과 작업환경 연구(2015년) → 봉제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공동사업단 구성(2017년)
 - 서울지역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2015년) →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유지 대책반(2018년) →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지원(2019년) →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교대제 개편 컨설팅(2021년)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정책방향(2019년) → 서울시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에 반영
- 2020년 이후 새로운 정책연구 결과의 정책화/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노동자 참여플랫폼 등)

4. 일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노동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8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2023년 현재 28,126명의 서울시민과 노동상담 진행
- 대체적으로 직종의 경우 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 상담이 전체 상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사무직, 서비스직의 비중이 높고, 업종별로는 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 용역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시설관리업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보건복지업 등의 순임.
-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 상담 비중이 전체의 6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데, 그중에서도 기간제, 용역, 단시간, 일반임시직 등이 높음.
- 상담유형으로는 임금체불과 노동시간·휴일·휴가 문제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징계·해고, 퇴직금 등의 순. 연령대로는 중장년이 가장 상담을 많이 이용.
- 노동센터의 증가, 코로나19의 영향 등의 요인으로 상담건수 양적 성장

노동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 권리구제: 2015~2023년 현재 총 1,202건 지원
- 직종별로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고, 그 중에서도 경비노동자, 미화노동자, 주차관리원 등 주로 용역업체 소속으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음.
- 지원유형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청 진정 건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해고 및 징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순임.

➡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상담과 권리구제지원사업이 애초의 목표대로 진행

노동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권리구제지원 사례 ✔ 상계주공 14단지 임금체불 진정 지원

- 노원구,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지원
- 진정서 접수 및 기자회견 (4.27)
- 경비노동자 31명, 미화노동자 18명 총 49명 임금체불
- 임대위원회와 용역업체 관리소장 사이의 갈등 발생, 관리비 집행 거부로 인해 체불임금 발생
- 노동자조직화 지원



4. 일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노동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11

☎ 전문적인 노동상담 경험(복수응답)



☎ 서울노동센터 이용 의향 전체 응답자 87.2% 이용 의향



신태중·박정우·이혜수·박성우, 2022, 『서울노동센터 법률지원사업 성과와 개선과제』

4. 일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노동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12

☎ 서울노동센터 노동상담 경험



☎ 서울노동센터 및 타 기관 노동상담 평가



신태중·박정우·이혜수·박성우, 2022, 『서울노동센터 법률지원사업 성과와 개선과제』

노동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13

상담과 권리구제의 원스톱 지원



● 서울시 노동센터 노동상담과 타기관의 노동상담의 큰 차이는

노동상담과 권리구제지원 사업이 원스톱으로 진행된다는 점

노동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14

서울노동센터 법률지원사업 특징



서울노동센터 법률지원사업 개선과제



신태중·박정우·이혜수·박성우, 2022, 『서울노동센터 법률지원사업 성과와 개선과제』

다양한 대상과 내용의 노동교육 확산

15

- 광역센터는 ① 광범위한 취약노동자를 위한 기초노동교육 과정과 전략대상을 위한 심화교육 과정을 기획·개발하고, ② 원활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며, ③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확장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해 옴.
- 자치구센터는 청(소)년 및 취약계층 노동권익교육을 비롯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노동법률교육 등을 진행
- 노동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권리침해는 다르게 표현하면 권리와 권리의 충돌,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는 갈등관계에서 비롯됨. 그 갈등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힘의 논리가 작용함. 노동교육의 목적은 노동이라는 범주 속 갈등관계를 힘의 논리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풀어나가는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라 생각함.
- 소규모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한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을 수강한 학습자의 경우, 조별토론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스스로 찾아보는 방식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함. 노동센터가 기획해 진행했던 노동인문학에 참여했던 학습자의 경우, 소규모·토론식·참여형 교육이라는 모집 안내문이 교육을 신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함.

다양한 대상과 내용의 노동교육 확산

16

- 서울시 노동센터의 주요 교육사업 내용

사업명	주요내용
노동교육인프라구축	- 노동교육강사단 구성과 운영 - 교재 등 콘텐츠 기획과 제작 - 신규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사업 기획과 운영
청소년노동인권교육	- 협력사업 : 서울시교육청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한 교육협력사업 - 기획사업 : 학교밖 청소년 등 취약청소년 대상 노동 교육 기획과 운영, 관련 네트워크 형성
취약계층노동권익교육	- 협력사업 : 지역 교육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사업 (시민노동법률학교, 직종별 노동교육 등) - 기획사업 : 전략대상 발굴을 통한 기획교육 개발과 운영
서울노동아카데미	- 2016년 서울시에서 권익센터로 이관 - 서울 시민 10명 이상이 모여 노동교육강사지원을 요청하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강사가 찾아가 교육 진행 - 교육 홍보, 신청접수, 강사매칭과 운영, 교육결과관리 등

4. 일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다양한 대상과 내용의 노동교육 확산

17

서울노동센터 성인대상 노동교육

								
	시민	사업주	공무원 및 산하기관 등	직업훈련 교육생	노동자	노조	역량강화 교육	기타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인문학 특강, 온라인 서울노동아카데미	어린이집, 민간 위탁, 스타트업, 소상공인, 창업센터 입주예정자, 서울지방우정청	공무원,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 대학생 행정 아르바이트, 서울의료원,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동부, 남부, 중부 기술교육원, 동부 여성발전센터, 예인청소년 세상, 강북지역자활센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다시서시종합지원센터, 50플러스재단	전국예술강사노조, 참여연대노조, 여성가족재단노조	상당지역량강화, 노동인권활동가,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 청소년도래노동자김이, 서울지역 노동단체 역량강화	독서모임, 서울시립대 및 인덕대 학생

신태중·김금숙·이주환, 2021, 『서울지역 노동교육 현황과 서울노동센터 노동교육사업 개선방안』

4. 일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다양한 대상과 내용의 노동교육 확산

신태중·김금숙·이주환, 2021, 『서울지역 노동교육 현황과 서울노동센터 노동교육사업 개선방안』

18

서울노동센터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4. 일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상설(거점) 휴서울노동자쉼터와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19

상설(거점)쉼터

- 휴게편의 제공 이외에도 교육 및 노동복지 프로그램 제공

명칭 (개소명)	실내 사진	주소	층 별	면적	구분	주기	내용	협력기관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2016.3.18.)		서초구 사평대로 354 호진빌딩 (서초동)	4층	151㎡	건강상담	매월 1회	- 건강관리에 취약한 특수고용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상담 시행 - 열압, 혈당 등 기초 건강상태 진단, 필요시 병원 진료 및 건강검진 안내	서울근로자건강센터
휴서울이동노동자복지상담센터 (2017.2.27.)		중구 세종대로14길 38 단암빌딩 별관 (북창동)	2층	333㎡	금융복지상담	매월 1회	- 금융위약계종의 건강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복지상담 시행 -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금융회복 상담 및 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휴서울이동노동자합정상담센터 (2017.11.29.)		마포구 양화로 73 체리스빌딩 (서교동)	5층	252㎡	법률상담	매월 1회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처리 방법 등 각종 분쟁에 관한 법률상담 시행	개인 변호사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 (2018.5.31.)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상암동)	6층	204㎡				
휴서울서플라이노동자쉼터 (2019.7.16.)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녹번동)	7층	181㎡				
					구분	내용		
					노동인문학 산책	- 이동노동자 간의 유대 강화와 노동인문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자유회를 겸한 인문학 교육 진행		
					세무교육	- 대부분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이동/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맞춰 세무교육 진행		
					이륜차 자가정비교실	- 이륜차로 업무를 수행하는 퀵서비스, 음식배달 노동자의 이륜차 자가 정비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운행 교육 진행		
					서플라이 기사 노동인권교실	- 노동관계법 및 노동인권 교육을 통한 서플라이 노동자의 노동인지 역량 함양		

4. 일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상설(거점) 휴서울노동자쉼터와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20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 시행 기간: 휴한기인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 시행 방식: 캠핑카 3대를 이용하여 이동노동자쉼터 3개소를 운영(총 2,510명 이용)
- 시행 장소: 서울지역 이동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0여 곳을 순회하면서 운영
- 물품 배포: 이동노동자를 위한 방역물품(마스크) 및 방한용품(넥워머, 핫팩 등) 지급 및 커피, 생수, 다과 등을 제공

취약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지원 사업

21

- 개별 노동자에 대한 노동상담·권리구제지원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의 이해 대변과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한계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업 확장에 대한 필요가 제기되어왔음.
- 개별 노동자에 대한 노동상담·권리구제 지원은 현실적인 절박성으로부터 지방정부 노동센터의 적절한 서비스 제공임에는 틀림 없음.
- 노동권익기관의 주된 서비스수혜 대상자인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있어서 정부 주도의 보호정책이나 행정서비스 제공도 중요하지만, 결국 비조직 노동자 스스로 결사해서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동(교섭)과 협약을 맺는 것을 통해서 권익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임. 이른바 비조직, 취약계층 노동자 스스로 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노동센터의 서비스이자 핵심 노동정책으로 정립됨.

취약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지원 사업

22

-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취약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 노동센터는 조직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조직화를 지원하는 '노동친화적인 조직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노동센터 간 협력과 공동사업으로 전략 업종 기획 조직화 사업 전개
-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14개 자치구에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진행
- 도심제조업 노동자 조직화 사업: 노동자조직화의 새로운 모델 - 봉제인공제회
- 플랫폼/프리랜서/이동노동자 사업: 각종 교육과 세무상담

5. 일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조직화 지원

취약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지원 사업

23

기존 사업	- 노동복지센터별로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신규(생)노조의 교육사업, 정책사업(조사, 토론회 등),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공식화하고 예산배정 확대
상담 영역 확대(♣)	- 기성(상급)노조의 요청이 아닌 현장 노동자 직접 요청 (개별적)노동상담의 영역을 사업장 단위의 노조상담영역으로 확대 - 노조법을 기반으로 상담은 가능하나, 단체교섭과정에 지원을 하지 못하면 노조 상담은 무의미함.
업종별 조직화 지원	- 사업장 단위가 아닌 업종별 조직화 지원(전략적 기획사업) - 노동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노조, 시민사회단체의 광범위한 지원 조직 - 이미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전략적으로 고려할만한 업종 - 도심제조업(봉제, 인쇄, 제화, 주얼리, 기계금속), 플랫폼노동시장(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 아파트경비노동자
비노조 형태	〈풀뿌리 노동커뮤니티 지원〉: 서울노동권익센터 2018년 연구과제로 진행 - 현 자치구노동복지센터가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제 모임'을 조직하고 자조조직으로 활성화 방안

5. 일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조직화 지원

취약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지원 사업

24

(1) 도심제조업 노동자 조직화 사업: 노동자조직화의 새로운 모델 - 봉제인공제회

- 취약계층노동자의 이해대변과 작은 사업장 환경에 조응하는 새로운 모델 발굴

구분	내용
자원	- 홍보를 위한 실질적, 물적 지원 - 행정지원 - 인력지원 - 봉제연구팀 구성 - 협업 및 회의 공간 지원 - 네트워크 소통을 위한 중간지원
교육·홍보	- 조직화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 조합원 교육 등 지원 - 봉제연구팀(홍보) 구성: 홍보영상과 교육교재 제작
네트워크	- 공익적 자원(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과 봉제공동사업단 활동 연결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서로넷 등 (민간) 단체와 봉제 조직화 연결
연구	- 의제발굴(2015년 연구사업) - '공제회를 품은 노동조합'이라는 관점 제시: 지속가능한 모델로서 공제회와 노동조합의 결합 모색 - 공제회 해외사례(일본 등) 검토

자료: 이철(2019),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이해대변 조직화 지원 역할」

5. 일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조직화 지원

취약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지원 사업

25

(2)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 2018년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유지대책반」 설치 및 운영으로 자치구센터와 공동사업 기반 마련
-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 공동사업 추진: 전국사업단, 서울공동사업단, 교육과 모임 지원
- 홍보소식지 제작 및 배포
- 서울지역 아파트경비노동자한마당 개최
- 상담과 권리구제 전담신고센터 운영
-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정 컨설팅 진행

5. 일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조직화 지원

취약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지원 사업

26

(2)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최저임금 인상 후 서울시 경비원 대량해고 전문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 4개 권역별 2~3개 단지이며, 이번 조사에서 설문 조사를 거부한 단지...전수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경비원 대량 해고사태는 없었고 대부분 단지... 소비자들위한신문 2018.03.14

- 최저임금 인상 후 서울시 경비원 대량해고 없었다 머니투데이 2018.03.13 다음뉴스
 - 최저임금 인상 후 서울시 경비원 대량해고 없었다 환경미디어 2018.03.13
 - 최저임금 인상 후 서울시 경비원 대량해고 없었다 국토매일 2018.03.13
- 관련뉴스 16건 전체보기 >

(공통)서울 아파트 경비원 대량 해고는 없었다

사람 자를 거 야냐. 주민한테 부담이 많이 가니까...【VCR】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올해 아파트 경비원 대량 해고 사태는 없었습니다.【Full C.G】서울 노동권익센터가 밝힌 자료... 인사이드케이볼 2018.08.23



“경비원 대량해고 우려”...서울 아파트 순회 나선 노동계[속]

민주일반노조, 21~22일 강남구 시작으로매주 서울 아파트 경비노동자들 순회 예정“근로... 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일반노조는 21일부터 서울 전역 아파트 경비원들을 만나는 순회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민주일반...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 헤럴드경제 2021.08.22 다음뉴스



5. 일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조직화 지원

취약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지원 사업

27

(2)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경비노동자	입주민
건강권 확보 ·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24시간 맞고대제는 안전 보건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 → 단지 특성에 맞는 교대제 개편안을 설계함으로써 건강권 확보	법적 분쟁 소지 해소 · 경비노동자가 관리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거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은 법적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노동권 보장 · 관리 업무가 많은 단지의 경우 경비노동자를 관리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개편안을 설계함으로써 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권을 보장	관리비 부담 경감 · 경비노동자들을 일반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경우 인건비가 큰 폭으로 상승 → 단지 특성에 맞는 교대제 개편안을 설계하여 경비원의 인건비의 상승폭을 줄임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의 상생 모델 구축 및 확산

5. 일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조직화 지원

28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취약계층노동자들 대상으로는 지역밀착형노동사업추진기본조성	금액 (천원) 18,000	59,000	85,000	60,000	66,000
신청 단체 수	8개	A형 6개 B형 5개	A형 6개 B형 11개	A형 3개 B형 2개	씨앗형(신설/노동자소모임) 7개 새싹형(신설/신생 노동조합) 9개 열매형(지역 노동단체) 5개
선청 단체 수	7개	A형 6개 B형 3개	A형 6개 B형 4개	A형 3개	씨앗형(신설/노동자소모임) 6개 새싹형(신설/신생 노동조합) 2개 열매형(지역 노동단체) 2개
○노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노동단체가 매년체계의구축추진	발전 과정 · 취약노동자, 주민모임 형성	· 지역노동네트워크 구성 · 사업유형 세분화 · 신규사업 발굴, 계속사업 지원	· 지역노동기반구축단 구성 · A형 사업 연속 지원	· 지역노동기반구축단 운영 지속 · A형 사업 연속 지원	· 사업유형 및 지원규모 다각화 · 노동자 소모임 및 신생 노동조합의 안정화 지원 · 지역 노동거버넌스 구축 지원
○지역의노동역량강화사업기반마련	대표 추진사업 · 방과후 강사 실태조사 · 청소년 청년 심야노동 실태조사 · 도봉구 여성노동자 건강체조교실 · 알바권리찾기 ABC · 여성뷰티업계 근로실태조사 · 우리동네노동인권 지도만들기	· 노동자 마을학교와 찾아가는 상담 · 돌봄노동자 스트레칭 교실 · 돌봄노동자 반성모임 · 노동인권학교 · 특성학교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조사 · 편집디자인과 인문학의 만남	· 마을노동자 역사체험 나들이 · 노동존중 예술작품 발굴사업 ·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노동자 학교 ·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 이주 가사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동적지역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 봉제노동자 커뮤니티 FGI 권익항상 사업 · 대리운전기사 직무역량교육	·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모임(노동자 인권해방) 구성 · 영등포구 주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마을사업(법상모임 등) 진행 · 동대문구 청년비정규직노동자 동아리 운영 · 동대문구 민간 노동협치를 위한 간담회 추진 · 가락시장노동자 노동실태조사 · 송파구 지역 노조(송파유니온) 창립	· 학교 급식노동자 불링소모임, 청소노동자 품물 소모임 운영 · 종로구 노동복지센터 설립 추진 · 동아시아 노동운동사 연구 · 동적구 주민노동자 모임 운영 · 학습지교사 조직화 추진사업 · 배달노동자 노동환경개선사업 · 공정한 방송제작현장을 위한 직종별 업무 가이드북 vol.1 방송작가편 발간 사업 · 동대문구 지역 내 노동의제 확산을 위한 노동협치기반구축사업 · 영등포 지역 노동권리 증진 및 주민의 노동인식 개선 사업

6. 광역노동허브: 센터 간 협력 및 공동사업

① 자치구노동복지센터(현 노동자종합지원센터)협의회 회의 정례화

29

- 2015~16년: 자치구센터 협의회(분기별 1회, 4개센터)
- 2017년: 자치구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단 회의(월 1회) 신설
- 2018년: 자치구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단 회의를 「자치구노동복지센터협의회」로 전환하여 월례회의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공동사업을 모색

② 권역-자치구 센터와의 협력 및 공동사업의 본격화와 기본방향

- 2018년부터 광역노동허브센터로서 역할이 강화되면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 및 공동사업을 본격화함.
-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권리구제 사업 확대 및 체계화, 노동상담 DB 사용 교육 및 공동 활용, 찾아가는 지하철역 노동상담, 공제회를 품은 노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화 모델 사업(봉제인 공제회 설립 등), 아파트경비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 등

7. 광역노동허브: 센터 간 협력 및 공동사업

② 권역-자치구 센터와의 협력 및 공동사업의 본격화와 기본방향

30

-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자치구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서울시 노동정책의 전달체계 구축과 새로운 사업의 발굴·안착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 공통 기본사업(예, 노동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사업, 교육사업 중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은 사업의 내용에 있어 어느 정도의 통일성 확보(매뉴얼화), 업무처리 체계를 정비(체계화)
- 서울의 노동문제(현안) 해결과 노동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공동기획사업을 동시에 수행함.

③ 지하철 노동상담

- 2019년 자치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협의회를 통해 지하철 노동상담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지하철 노동상담 사업 계획을 기획하고 자치구센터와 공동으로 수행
- 서울시, 자치구노동복지센터, 교통공사노조와 함께 지하철 직장내 괴롭힘 집중상담 창구 운영
- 지하철 노동상담(2019. 9. 4 ~ 12. 31) 진행 실적: 10개(강구, 강서, 관악, 광진, 구로,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중랑) 자치구센터, 14개 지하철역사에서 진행. 514건

7. 광역노동허브: 센터 간 협력 및 공동사업

31

③ 지하철 노동상담

- 2020년에도 사업 추진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 2023년 재개, 확대 모색중

④ 봉제,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사업 참조

- 영세 도심제조업의 새로운 조직화 지원 사업모델로서 봉제인공제회 창립(2019.11.17.) 지원: 4개 센터 (성북, 중랑, 구로, 광진) 협업
- 아파트 경비노동자 지원사업 확대(2019년 4개 센터: 서대문, 강서, 노원, 성북 → 2021년 11개 센터: 광진, 중랑, 은평, 마포, 구로, 중구, 영등포 → 23년 현재 13개 센터: 용산, 강북)

⑤ 청소년노동인권교육(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실시 및 교육체계 정비 추진

- '서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와 '특성화고 전교생 노동인권교육 의무실시' 방침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와 그에 대한 교육사업을 자치구센터와 협력하여 진행.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
- 2018년 자치구 센터와 협력을 통해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수행

7. 광역노동허브: 센터 간 협력 및 공동사업

32

⑤ 청소년노동인권교육(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실시 및 교육체계 정비 추진

- 2019년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확대 수행
- 권익센터는 강사단 등록, 강사워크숍, 시민참여예산집행, 교육평가 설문 및 개선과제 도출을 담당함.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자치구센터가 없는 지역의 교육을 주관함.
- 2020년 관내 학교에 대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수요 발굴과 교육 수행을 위해 강사수당지급기준, 공동강사단 구성, 교육청 협조를 통한 교육안내 공문 발송, 공동서식 마련 등 서울지역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일관된 업무수행 방침과 기준 설정으로 시스템 정비

⑥ 상담과 권리구제 체계 구축

- 상담-권리구제-예방으로 이어지는 서울시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 기반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민간의 노동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화되어 있음

7. 광역노동허브: 센터 간 협력 및 공동사업

33

⑦ 노동상담 DB 공동 이용

- 노동센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상담의 내용을 서울노동상담DB에 모두 기록함으로써 상담수요예측과 서비스 개선과제 도출, 상담사례관리를 목적으로 함.
- 매해 자치구/권역센터의 서울노동상담 DB 공동 이용 확대(2016년 3개소, 2017년 4개소, 2018년 8개소, 2019년 12개소, 2020년 16개소)
- 신규센터 개설 시 노동상담DB 활용 교육, 연간 통계 및 상담 사례 분석 후 각 센터에 자료 제공

⑧ 상담전화번호 통합(1661-2020)

- 1661-2020으로 전화하면 가까운 자치구/권역센터로 연결, 상담 가능
- 자치구센터(17개소), 권역센터(4개소)가 지역별 노동상담 분담과 노동권익센터 지원역할 강화
- 서울시민이 인근 지역 센터에서 노동상담이 가능하도록 통합상담번호를 이용, 상담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7. 광역노동허브: 센터 간 협력 및 공동사업

34

⑨ 노동존중 공동캠페인

- 노동존중 사회적 문화 형성을 위한 자치구센터와 통합·공동캠페인, 매년 공동캠페인 주제 협의, 대시민 캠페인 수단 협의, 잘 드러나지 않는 노동문제를 직·업종별로 구체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당신의 노동에 감사합니다.' 시리즈 진행. 가독성과 전파력이 높은 동영상 위주 홍보물 제작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업종 공동 선정, 자치구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의 홍보물 제작, 동시다발적인 홍보활동

⑩ 기타

- 노동센터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직원역량강화교육을 광역단위로 진행, 상담자역량강화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리더십교육 등
- 구의역 참사 관련 노동안전 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21.5월 ~ 22년 5월) 23년 추모제
- 혹서기 이동노동자를 위한 얼음물 지도 만들기와 생수 배포 사업(21.7~8월 ~ 23년 7~8월)



〈토론 현장 녹취록〉

홍윤경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주진우 (前 서울시 노동특보)

박재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

이정훈

이제 토론을 좀 들어볼 텐데,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 위해서 애써주신 인연을 맺어오신 분들입니다. 세 분을 제가 앞으로 모실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전 서울시 노동특보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을 지내신 주진우 특파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서울시 노동센터 협의회 정책위원장 운영위원장 집행위원장이시고요. 영등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홍윤경 센터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비정규 노동단체 네트워크 한비내조 공동의장을 맡고 계시고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계신 박재철 의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재철

네 감사합니다.

이정훈

세 분께서 토론을 해 주실 텐데, 홍윤경 센터장님이 3시에 나가셔야 돼서 순서는 홍윤경 센터장님을 얘기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주진우 특보님 말씀을 듣고, 박재철 공동의장님의 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정해졌고 말씀은 한 5분에서 7분 사이로 정리를 해서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홍윤경 센터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홍윤경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나오나요? 네 홍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은 영등포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있지만,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함께했던 10년을 제가 돌아보니까 사실은 지금 영등포 센터가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해요. 제가 처음 서울의 분리센터를 만난 건 제가 이제 캘린더를 오늘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분명히 권익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캘린더 찾아보니까 2015년 2월 24일이더라고요. 2024년 12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랬고, 그때 이제 이미 시작한 상황에서 2월 24일 개소식을 저 안국동에서 지금 감정노동센터 자리 거기서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때 저는 영등포산업선교회 그러니까 노동 민간단체죠. 노동 민간단체 실무자로 일하면서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미 구립 센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노원센터 선생님 오셨지만 노원 구로 서대문 센터들이 있었

는데, 그런 센터들하고 저희 사업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구립센터가 아닌 시립센터가 생긴다 그러면은 훨씬 할 수 있는 일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내가 도움받을 게 많겠지 그러면서. 이 소식 꼭 가야지 그래서 사실 앞에 제가 다른 회의가 있었어요 있었고, 그 회의도 뭔가 뒷풀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얼른 넘어갔던 기억이 켈런더를 보니까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제가 크게 보니까 세 가지 축으로 제가 만났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영등포 산업설계 실무자로서 두 번째는 통통통이라고 하는 노동자 심리 치료 네트워크 제가 또 사무국장을 겸직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서울 노동부 센터가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현재 이 센터 협의회인데, 첫 번째에서 제가 했던 걸 살펴보니 기본적으로 제가 또 한미 대표 사회로 나가면서 볼 때, 서울 노동권익센터도 엄청나게 크면서도 인프라가 많구나.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느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많이 내가 진짜 도움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2016년에 이걸 통통통으로 한 일인데, 상담자 역량 강화 교육을 했는데. 그때 이 마음 치유 내용으로 이틀간 진행할 때, 제가 이제 스텝으로 스텝과 보조강사로 참여해서 그 교육을 진행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노동 커뮤니티 사업에 아까 나왔죠. 노동 커뮤니티 사업에 제가 참여 신청자로 참여를 했었고, 또 나중에는 심사위원으로 했었던 그런 두 가지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교육 최근에 또 교육 콘텐츠에, 또 제가 뭐랄까 내용으로 제가 참여를 동영상 콘텐츠에 작년 재작년인가요? 네 참여했던 그런 경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내가 여기에 참여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사실 그런 일을 하면서 저한테 노동이 센터는 너무나 커 보였어요.

그런데 이 큰 센터가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굉장히 유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위탁 센터가 저희 처음에 생길 때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논쟁이 사실 있었습시다. 한비 내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찬성하는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용한 걸 잘 활용해야 되니까. 근데 대가 위탁센터 가서 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계속 민간센터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민간단체에서. 근데 제가 위탁 센터에 가서 일하겠다는 용기를 얻었던 게 사실은 보디 센터였던 것 같아요. 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렇다면 나도 한번 위탁센터에서 일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즈음에 이제 영등포센터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영등포센터에서 센터장을 하면서 직접 여기에 발을 담가보니, 사실은 밖에서 봤을 때하고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람은 경험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더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직접 위탁센터를 해보니, 정말 더럽고 치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내가 당장 때려쳐 이렇게 생각하

는 애들이 그러니까, 유용한 만큼 뭔가 활용도가 높은 만큼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준 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서울시 노동센터 협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왔더니, 그때가 제가 21년 10월에 저희 센터가 개소를 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처음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깎으려고 할 때예요. 그래서 전 센터장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피켓 들고 나가서 이렇게 1인 시위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자주 만나니까 센터장들을 친해지고 뭔가 같이 고민을 나누게 되고 하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내가 어떤 걸 배워야겠다 이런 사업은 내가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감정노동센터 우리 이정훈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감정노동센터가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팀으로 있을 때부터 같이 협력을 했어요. 제가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감정노동자 사업 노동자 마음 치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같이 연대를 하다가 이제 이제 따님이 독립을 하셨잖아요. 독립을 한 다음에 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던지 제가 물론 서남 거점으로도 참여를 했지만, 저희 영등포산업연구회가 그리고 나서 또 저희 센터를 만들었을 때 저희 센터는 구립 센터 중에서 마음 치유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되게 영등포구가 좋아하더라고요. 이미 강정센터가 많이 갈고 닦아놓은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필요한 거다. 꼭 해야 된다. 근데 여기 센터장이 상담하고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면 해야지라고 해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무 자료가 없는 거예요. 워낙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립 센터들이 상담료를 얼마나 책정해야 될지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다 감정노동센터 걸 벤치마킹해서 갔다가 쓰면, 이거 감정노동센터가 했어요. 그러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루터기가 있다는 것이 참여한 노동센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됐다.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7분이 딱 됐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당부의 말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당부의 말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울컥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 광역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많이 서울시가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 정책 연구 사업을 저는 광역센터가 반드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립자치부서에서 할 수 없어요. 그 예산을 뭘 합니까? 풀랑 못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영등포구의 배달 노동자와 노원구의 배달 노동자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비슷해요. 서울시에서 일하면 그렇기 때문에 연구 정책 사업은 광역센터가 틀어쥐고, 각 자치구 센터들을 이 연구하고 싶은 센터 모여 해서 하고, 저희 연구 센터 하고 싶은데 모여.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저

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많은 예산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온 것들 다 맨 마지막에 나왔던 그 화면들 다 동의하고요. 노동 상담 DB를 받는 건 정말 너무나 잘한 일이고, 이거를 모든 영역에 교육 사업이든 문화복지 사업이든 다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DB 작업을 자료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동 사업 담당자 워크숍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각 사업 담당자별 워크숍을 해야 된다. 그걸 누가 하겠어요? 저희 4명 있는 센터가 뭘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역센터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권익센터는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든든한 연결고리였으며 그 연결의 중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네 감사합니다. 정리를 막판에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세 글자로 얘기하면 노동권익센터의 산 증인입니다. 어떻게 이 노동권익센터와 연을 맺었으며, 또 활동을 해왔고,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또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생길 때의 과정들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3시에 가셔야 되니까 우리 센터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동특보를 지내셨고 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님을 또 지내셨습니다. 그때 저희 감정노동센터하고 MOU도 최초로 이제 체결해서, 사진도 한 장 남아 있는데요. 저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우리 주진우 전 특보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주진우

다섯 글자 쓰라고 그래서 뭐라고 내용적으로 쓰기에는 모하고 제 심정을 표현했는데 애썼습시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다섯 글자를 정말 10년 동안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애쓰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한테 주문된 것은 이제 서울시 노동 정책의 이런 관점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활동을 좀 평가해 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아마 여느 토론회 토론이랑은 좀 다른 저도 심정이 되어서, 무슨 토론자가 뭐가 잘못했고 뭘 잘했고, 앞으로 모를 수도 깊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기보다는. 아무래도 소외에 가까운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PT 10분 안에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짧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했구나 다시 한 번 느끼게 되고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은 이 마을에 가면 느티나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서울이라고 하는 커다란 마을에 물론 이 수백 년 된 아직 루트 나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법 바람이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고, 그들도 제법 생기고 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의탁을 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느티나무로 든든하게 자라고 있구나. 이런 생

각을 이미지로 먼저 좀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표현 중에 일하는 시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실은 기존의 노동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 특수고용 이런 거야 오래됐지만, 그 이외에도 요새 플랫폼 노동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노동자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는. 이렇게 계 잡히지가 않는 그런 영역까지 다 포함이기도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면서. 또 거기에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 뭔가 노동자 그러면. 뭔가 시민하고도 다른 어떤 대접들을 늘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이제 시민권의 영역으로까지 이제 관점을 넓혀서. 진짜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 시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해왔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 표현에서 좀 느껴졌습니다. 발표해 주신대로 이해 대변 활동, 그다음에 서비스 상담 및 권리 구제를 포함한 서비스 활동,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중기 이후에는 조직화 지원 활동, 그다음에 각 자치구 센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허브 역할을 하는 활동들을 포함해서. 이런 법률화된 영역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해 왔고. 아까 말한 그 느티나무로 얘기한다면 정말 썩에서 이제 줄기가 자라고, 또 여러 가지 가지가 펼쳐지고 잎과 꽃이 새들이 와서 이렇게 안고 하는 그런 매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위탁기관 최근에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안타까움이 저도 마찬가지로 들기도 하고. 또 서울시나 정부 노동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울한 마음이 요새 겨울 날씨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하나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펼쳐놓은 나무가 저는 잘라질 일도 죽을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좀 잠시 쉬어가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발제글에도 많이 표현되고, 우리 사업에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동자라고 하는 이름들을 이렇게 잘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저도 이전에 민주노총에 있을 때 미조직 비정규 좋습니다만. 말을 붙이면서도 되게 어색했죠.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의 정체성을 뭐가 아닌 정규직이 아닌 조직화되지 못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렇잖아요. 또 오늘 발제문에서 보면 그림자 노동, 보이지 않는 노동, 사각지대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 이런 그런 표현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뭐가 아닌 거라든가, 가려져 있다든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표현이죠.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의 처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두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런 이름들을 갖게 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노동권익센터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표현하기 힘들죠. 서울시 아마 공식 문서는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취약계층 노동자, 취약계층 근로자 이런 표현을 쓰

는데, 그 말도 사실은 썩 마음에 드는 말은 아니죠. 대상화 되고 우리가 무슨 큰 기부나 선처의 대상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사실은 좀 드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는 과정이 노동권익센터의 어떤 과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뭘 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까 조직화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주체로서, 주체가 스스로 단결하고 자기의 권리 잊혀진 권리나 못 가진 권리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간다. 이런 의미들이 강해서 아마 조직화 지원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고. 서울시 안에서도 중기 이후에 이제 디센트워크라고 이제 좋은 일자리 국제 포럼 이런 것도 중간에 하면서. 아마 그 시기 전후로 해서 서울 대표적인 유니온 시티.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도시 혹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단결권이 보장되는. 약자들의 단결권이 보장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비전을 이제 당시 시장님하고도 이렇게 같이 선포하고 했고.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권익센터의 조직화 지원 사업하고도 연관이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찾아주는 과정에서의 조직화 지원 활동은 저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권익센터 활동 중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노동정책으로 얘기하면 12년이 됐더라고요. 2011년 겨울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에 서울시에 이제 제가 노동보좌관으로 들어갔을 때, 서울시 노동정책이 없었죠. 근데 아마 어떤 부서에 두 명인가 이렇게 해서 일을 하시면서 하나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 광역자 설립 신고 그거 해야 되니까 신고 수리 과정 그 업무를 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한국노총 서울본부하고는 이렇게 뭔가 협력 관계하고 지원도 하고, 그렸으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관리하고 하시는 분 두 분이 활동을 해오는 거 이외에 노동정책은 없었고요. 그건 우리나라 고용노동 정책의 시스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대부분이 고용노동부라든가 아니면 지방고용청 이런 데서 이제 관련된 사업들을 쪽 진행을 해왔는데. 서울시에서 법을 만들 수도 없고, 근로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당시에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찾아보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됐고, 많은 일들의 어떤 90%는 노동과세 지금까지 해온 그런 일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는 기존에 이제 조직 노동하고의 어떤 뭐라 그럴까, 협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그런 일들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고. 또 조례라든가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립하면서, 뭔가 펼쳐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초기에 서울시의 일들이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자신의 공공 부문에 해당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한다든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 시킨다든지 해고자들 복직을 시킨다든지. 이게 다 이제 공공적인 영역에서 하나의 사용자로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해왔다고 하면. 이 노동권익센터가 만들어지고 자치구의 당시로서 노동자센터 지금 종합지원센터라고 이름을. 그렇게 하는 그 단위들이 해왔었던 것은 그런 공공 부문에 대한 일이 아니라, 일하는 서울시민, 모두 일하는 서울 노동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왔고, 그것이 특히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름 붙이기 어려운 노동자들은 이런 분들과 함께해왔던 10년의 역사여서 서울시 노동정책이 공공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시 전체 민간 부문까지 할 수 있는 자신의 여건을 펼쳐온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시가 노동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향후로는 더군다나 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종합지원센터, 감정노동센터, 어르신돌봄지원센터, 직장맘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등의 노동지원조직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서울시 노동정책이 이제 발전 정도로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로 크게는 말씀을 드리고, 당분은 없고요. 아쉬운 마음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부침이 있는 어느 세월이나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문종찬 전 소장님, 이남신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남아서 일하시게 될 상근자 여러분들한테도 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특보님의 이력에 맞게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동권익센터의 역할과 그다음에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 또 서울시 노동 정책이 어떤 식으로 좀 발전해 왔는지도 곁들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근자 선생님들께 격려도 드렸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박재철 한비네 공동의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박재철

이번 토론 자리에 제가 앉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앞에 술잔이라도 있었으면 좀 불편할 텐데. 밖에 지금 눈이 와요. 부담스럽게 오지는 않는데, 하여튼 오늘 마음 같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좀 여러 생각을 하는데,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2014년이었나요? 아마 12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서울시의 노동권익센터가 만들어졌다고 한 14명이 워크숍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아끼는 대부도 안산 땅을 좀 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건방지게 갔죠. 우리 땅에 왔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몇 가지 당부도 드리고. 또 같이 지하에 노래방에서 펜션 지하에 노래방에 있는데. 밤새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그 10년 전에 그 모습은 세상에 불을 처음 가진 어떤 존재처럼. 뭔가 열정적으로 우리가 갈구하

는 무언가를 우리 많은 노동자들에게 함께하겠다는 그 의지와 뜨거운 마음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벌써 이제 10년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로 많이
 정말로 탄탄하게 해내신 것 같아서,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2012년도에 안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민간센터 이제 있
 다가 저기 이제 위탁을 받게 될 텐데요. 그때 2012년 제가 7월 6일 날 개소를 했는데
 7월 5일 날 담당 과장하고 저하고 만났습니다. 담당 과장 왈 저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
 면 2명의 상근자를 주면서요. 센터장님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
 요. 그게 되니까 오로지 예산 그때 얼마 줬는가 하면, 반년해서 한 7천만 원, 1년 1억
 3천정도 예산만 잘 쓰시면 됩니다. 무탈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
 가. 잘 알겠습니까? 두고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2003년도에
 울산 북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현대자동차가 일부 기부 채납을 하면서 만들
 어졌어요. 1년 예산에다 사업비 한 5천 6천정도 됐을 겁니다. 그럼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로 기억하는데, 10년도에 이제 전주에서 센터가 만들어지고.
 11년 12년 이제 쪽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2014년도에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만들어졌잖아
 요.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노동행정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별로 상상이 없었습니다.
 지방정부가 뭘 할 수 있어? 노동 문제는 중앙정부 고용노동부가 하는 것이거나. 또는 일
 부의 취약층들을 위해서는 복지 정책으로 하는 것. 또는 대기업 중심의 큰 기업에서 노
 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고 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잘 아시다
 시피 90%의 노동자들. 저는 그 노동자들을 이웃 노동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많은 이
 웃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권리나 전반에서 다 헌법에 있는 권한조차도 그림의 떡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니다. 그런 상황의 중요성을 비추어서, 저희는 민간에서 계속 지방정부
 가 이제는 책임 있게 나서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뭘 할 수 있
 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감이 없었고. 또 특히 그걸 실행하고 감시하는 또는 관장하는 지
 방정부의 공무원들은 아예 그냥 손사래를 쳤던 거죠.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고, 아무것
 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센터장님 돈이나 제대로 쓰세요. 큰 탈 일으키지 마세요 했
 더니. 근데 2010년부터 이제 안산에서 2012년 만들어지고 계속 뭔가를 했는데요. 정말
 민간에서 10년 넘게 춥고 배고프게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상상력을 지역에서 90%의 이
 웃 노동자들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만들어졌더니요.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서울노동권익센터
 시기와 질투의 눈빛으로 봤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쟁기로 밭을 엄청 열심히 가는데요.
 서울에 오니까 트랙터로 가는 거예요. 속도나 양이나 전반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러
 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서울에서 어떤 노동특별도시, 노
 동존중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때는 좀 꿈을 가졌었죠. 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존재는 첫 번째는 지방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새로운 좌표를 만들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전국 방방 곳곳에서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묻고 배워가고. 그랬던 과정에 중심에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있었다라고 자부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감성노동센터도 그런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경기도는 지금도 노동국에 있지만.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저한테 오지 않고 맨날 서울노동권익센터만 갑니다. 짜증 나죠. 저한테 물어보면 더 많이 알 텐데,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던 서울노동권익센터였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렇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조금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는 굳이 오늘 자리에서는 큰 얘기는 아닐 텐데, 저는 이런 중요한 조직을 지켜주고. 이 중요한 조직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게 하는 거는. 사실은 정치의 힘도 있지만 그 권한과 그 서비스를 누리는 노동자들의 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 노동자들 대부분은 마른 밀가루처럼 있어서, 콧바람만 풍겨도 다 흩어지고 마는데. 우리 노동운동은 그것이 아니라 물을 가해서 다시 뭉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이제 취약 노동자들 조직하는 사업이 그런 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10년 전부터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노력을 했다면, 오늘의 아쉬움을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좀 느끼고 그래서. 그것도 이후에 숙제로 남기고 저희는 이제 모델을 보고 좀 더 발전해서 조만간에 서울시가 못했던 노동자들이 이웃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의 노동 정책과 권리에 대한 토론을 하고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저는 일명 워커라운드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서, 다시 서울시에 선물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갖고 그래서 그런 날까지 또 저희가 달릴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결과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좀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에 예산이 1차로 지금 짜여 있는데, 한 1년 51억 정도 되는 거죠. 아마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1억이면 서울시 전체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노동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그 적은 예산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51억이 지금까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수탁해서 또 열정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했던 분들이 끌고 왔던 시절에 51억이 쌓여지는 거 하고. 또 이제 새롭게 1월 1일부터 누군가가 할 텐데요. 이분들이 하는 거 하고. 모양새는 닮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심이 같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상근자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요. 가급적이면 좋은 직장 찾아 떠나지 마시고. 여기에 좀 남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아서 이후에 서울시에 50억이 넘는 예산이 우리 권리 밖에 있는

90% 이웃 노동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전달되고 쓰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끊임없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큰 어떤 밑거름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당부드리고 싶고요. 저희 한비네는 아시다시피 전국에 한 70개 정도 기관 단체들이 모여 있는데, 서울시의 모습 또 다음 연도에는 대전과 충남이 위탁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에 그랬듯이,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을까라고 하고 망설였지만. 굳건하게 튼튼하게 왔고 또 앞으로도 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 12월 5일 날 지자체 노동센터 지방정부의 노동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의무화하고 법제화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동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지방 정부의 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또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제화 투쟁을 같이 시작할 계획인데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시즌2의 시작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2014년도에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제일 처음 만들어질 때 워크숍을 했는데, 우리들한테 이제 먼저 경험한 센터들의 조언을 좀 들어야 된다. 안산과 광주에서 센터장님들이 올라 오셔서, 직접 소개와 설명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좀 생각이 나고 쟁기 트랙터 밀가루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노동권익센터의 역할과 그다음에 성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여기 플로어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조금 더 내가 말을 보태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계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토론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얘기는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의견이 있을까요? 없으면 저는 굉장히 쿨합니다.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뭐 하고, 바라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발제를 맡아주셨던 이철 사무국장님의 또 의견과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철

어쨌든 10년 횡수는 10년이고 아까 대부도의 추억을 말씀하셨는데. 기억나는 게 그때 한 가지인데 공무원하고 싸워라.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좀 남고. 하여튼 그 자리에서 조금 얘기했던 것들이 다시 조금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이 좀 나고요. 그다음에 좀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조진우 노동특보팀이 얘기했던 유니온시티 문제의 식 관련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나름대로 성과를 좀 내가면서.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이제 노동존중 특별시에서 유니온시티라는 어쨌든 조금 큰 담론과 그런

것들을 좀 했고. 그 이후에 저희 사업 내용들도 사실 질적으로 많이 좀 변화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조직화 사업이 됐던. 그다음에 나머지 앞으로 잘 할 소지가 있던 워커 라운드라고 했던. 우리는 노동자 참여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좀 시도해 보려고 했던 사업들. 이런 문제의식들이 계속 좀 살아남고 앞으로 좀 계속 되고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요. 그 과정 속에 이제 어찌 됐든 저희가 계속 만나왔지만, 아직도 못 만났던 노동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직접 자신의 삶과 노동에 관한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을 좀 만드는 그런 바람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조그마한 소망 말씀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첫 번째 세션 서울노동권익센터의 10년 성과와 과제 그리고 센터와 인연을 맺어 오셨던 세 분의 토론자의 토론을 함께 들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대한 애정과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또 바람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녹아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다시 한 번 발표를 맡아주신 이철 사무국장님 그리고 주진우 특보님, 박재철 공동의장님 지금 가셨지만, 홍윤경 우리 센터장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토크콘서트 현장 녹취록〉

이상훈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교육팀)

남운도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교육팀)

정기창 (서울노동권익센터 쉼터사업팀)

박정우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

정경화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허브팀)

이정훈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우리 토론에 이어서 토크콘서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노동센터에서 노동하기>라는 제목으로 토크콘서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5시 반부터 딱 시작할 수 있게. 이미 이야기 돼 있고 맛있는 또 식사가 눈과 어울리는 메뉴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갔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은 권익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상대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러려고 했는데 이미 나와 이미 뿡하고 나타나셔서, 다섯 분을 모셨고 각 영역별로 활동을 하신 선생님들을 또 모셨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자유롭게 상품 소개를 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성함하고 하고 계시는 일 센터에서 몇 년 정도 일을 하셨는지, 그 세 가지의 정보를 포함해서 선생님들의 얘기를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화 선생님부터 먼저 말씀해주세요.

정경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허브팀에서 일하고 있는 정경화고요. 일한 지 6년 됐습니다.

이정훈

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우

들리나요? 정책연구팀에 있는 박정우고요. 저도 한 2018년 2월쯤에 입사를 해서, 한 6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정훈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정기창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이동노동자 합정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정기창이라고요. 저는 3년 9개월 됐습니다.

남운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교육팀에서 노무사고요. 이름은 남운도라고 합

니다. 올해 8월에 들어와서 이제 한 일한 지가 한 4개월 정도 되었어요. 조금 더 이따가 더 자세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예 반갑습니다.

이상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법률교육팀에서 교육업무를 하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일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정훈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6년 되신 분부터 4개월 되신 분까지 근속 연수로 따지면, 좀 다양하게 이렇게 모신 것 같고. 또 영역별로도 각각 섭외를 해서. 우리 준비진이 얼마나 꼼꼼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진들이 많이 있네요.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아까 오자토크 우리가 투표를 좀 해서 뒤에 지금 현황이 짝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전자동 수동 시스템으로 집계를 할 텐데 모자 토크에 뭐라고 쓰셨는지 한번 왜 그렇게 좀 쓰시게 됐는지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이상훈 선생님부터 좀 말씀해볼까요? 오자토크에 참여하셨나요?

이상훈

아직 미참여해가지고 지금 애드립으로 가야

이정훈

오케이 애드립으로 뭘 좀 해보고 싶습니까?

이상훈

토크콘서트다

이정훈

서울노동권익센터는 토크콘서트다. 토크콘서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훈

그러니까 이게 서울노동권익센터가 각자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네요. 존중하고 서로를 서로의 얘기에 경청하고, 또 다시 또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토크콘서트

이정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상훈

어제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이정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꿈보다 해몽이라는. 근데 역시 교육위원님답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거기에 의미를 굉장히 잘 부여하는 그런 신기를 또 발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박정우 정책연구위원님 뭐라고 쓰셨나요?

박정우

표를 많이 못 받았는데 저걸 우리들의 청춘이라고.

이정훈

우리나라의 청춘 왜 그렇습니까? 청춘을 바치지 않나요?

박정우

아니요. 아직 청춘인데. 청춘의 초기를 좀 바꿨다.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인생의 한 페이지가 아니었나.

이정훈

박수 한번 주세요. 청춘을 우리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바치기도 했고, 또 그 청춘을 지금 다른 분께 바치기도 하고 있죠. 여기 와서 결혼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후회와 회한과 나의 아까운 청춘 그런 것들을 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청춘 감사드리고요. 남운도 노무사님 순서같습니다.

남운도

다섯 글자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좀 그래 기왕이면 좀 예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사회 연결망이라고 써봤어요. 이게 제가 있어 보니까. 제가 하는 일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과 사람들이 만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게. 제가 아는 멋있는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사회 연결망이라고 적어봤어요.

이정훈

예 감사합니다. 박수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토크콘서트하고도 살짝 맥이 통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사회연결망 좋은 뜻입니다. 우리 정기창 선생님?

정기창

저는 서울특별시라고 적었는데요. 나올 때 보니까 철저하게 외면당했더라고요.

이정훈

그 얘기를 좀 의미를 들어보고 싶네요.

정기창

처음에는 노동권익센터라고 했을 때 뭘 떠오르냐고 했었을 때, 사실 요즘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예민하게 계속 민감하게 기다렸던 곳이기도 하고. 늘 그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서울특별시가 떠올랐긴 했고요. 그것만 대답을 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나름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해 봤고요. 어차피 앞으로 이제 한 2주 정도 뒤면 이제 통합이 돼서 새로운 노동권익센터가 이제 나갈 텐데 개인적인 바람을 좀 담았습니다. 서. 서울의 봄 영화처럼

이정훈

오행신인가요? 제가 운을 띄워드게요.

정기창

서. 서울의 봄 영화처럼. 울. 울림을 주는. 특. 특별한 센터로 거듭나서. 별. 별의별 노동자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시. 시립센터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정훈

이거를 다 이어서 우리가 서울 이렇게 하니까 앞에 걸 자꾸 까먹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를 다 이어서 쪽 붙여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기창

서울의 봄 영화처럼, 울림을 주는 특별한 센터로 거듭나서 별의별 노동자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시집 센터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정훈

바로 이겁니다. 이게 서울특별시라고 쓰신 이유예요. 다시 스티커 떼가지고 내가 했던 투표에서 빼서 다시 서울특별시로 붙이고 싶으신 분들은 붙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미네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가 안 했다 싶은 사 한 사람 있지 않을까 어떻게 쓰셨나요?

정경화

저는 2개를 제출했는데요. 하나는 출퇴근 카드라고 적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다 태그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거 도입될 때 저는 좀 개목걸이 같기도 하고, 뭔가 출근 노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반대했는데. 어쩔 수 없이 도입이 됐는데, 이제는 사실 굉장히 친근해졌고. 이걸로 내가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속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노동자들의 어떤 성실한 노동자의 상징 이런 느낌 매일 아침에 나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찍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오늘 하루 열심히 또 살았구나. 하고 퇴근하고 찍고 이런 느낌이어서 출퇴근 카드라고 적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보조 배터리라고 또 제출을 했어요. 다들 요즘 에너지 다 이렇게 방전되어 가는 그런 노동자들 많은데. 우리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이동 노동자들에게도 되게 필수적인 거잖아요. 보조 배터리는 그런 것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어려울 때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자치구센터나 서울노동권익센터도 마찬가지로. 다 기념품이나 이렇게 홍보용품으로 보조 배터리 많이 제작했잖아요. 그거에 착안해서 2개 제출했습니다.

이정훈

네 감사합니다. 보조 배터리와 출퇴근 카드 다 몸에 지니고 있는 소품들에서 착안을 하셨네요. 그죠? 다섯 글자 표현 중에 노동자의 벗도 있었고. 또 뭐가 있더라.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내가 이거는 홍보를 좀 하고 싶다. 내가 썼지만 너무 기발한 것 같았다. 우리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스티커 떼서 붙일 수 있거든요. 다른 데서 떼가지고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의 주인공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쓴 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 없나요? 역시 저는 쿨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를 듣다가 무슨 나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토론할 때 그래서 버팀목 느티나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 나무를 이용해서 뭔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섯 글자가 다 넘어가더라. 그 말이 길면 다섯 글자를 못 줄이는 그런 병에 걸립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오자 토크는 들어봤고. 이 센터는 언제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몇 년 차인지 다 들으셨으니까 생략하고요. 우리 센터에 들어오시면서 기대했던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 다 면접을 보시고 면접 때 좀 얘기했던 내용이. 우리 남운도 노무사님은 가장 생각이 잘 날 테고. 또 정확히 6년 이상 되신 분들은 가물가물하실 텐데. 내 센터에 들어와서 들어올 때 어떤 기대가 좀 있었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정기창 선생님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정기창

기대라고 하면 우선 제가 좀 나이 한 45이 넘어서. 뒤늦게 학구열에 막 불타가지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거의 계기가 됐던 게 책 한 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연출된 느낌이긴 하지만 사실인데. 미국의 스포츠 전문 기자인 미치 앨봄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제목은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이고요. 그 기자가 스승인 모리 교수님이 이제 루게릭병에 앓아서 사망하기 전까지. 14번의 만남을 이제 그 소재로 쓴 책인데. 그 책을 보고 이제 저희가 뒤늦게 이제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으면서. 나름 제 이제 가치관이랄까 생활신조.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변하기도 하고. 뭔가 좀 확고해진 것 같아요. 좀 거창하게 표현을 하면 사회 평등을 꿈꾸며. 연대와 공감을 실천하자 이거였는데. 그래서 쉼터 오면서 이렇게 이용자분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현실들을 좀 잘 공감하고. 그분들과 함께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잘 연대를 해서 풀어나간다고 하면. 제가 어떤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잘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훈

예 감사합니다. 연대하고 공감하는 평등을 위해서. 그런 이제 이 펼치는 장이 되기를. 우리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좀 기대하고 들어오셨다.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모리 교수와 함께 14번의 만남을 가졌던 그 신문 기자는 그 모리 교수님의 제자였나요?

정기창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제 간에 그런 이제 어떤 교감을 하면서 뭔가 공부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서 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그분께 있었던 것 같아

서. 되게 좀 인상이 깊고. 또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또 감명을 받고 뭔가를 이 인생의 계기를 또다시 만들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하셨는데. 되게 좀 부럽고요. 우리 또 듣고 계시는 우리 청중들께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나중에 또 뒤돌아볼 때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훈

감사드립니다. 또 누가 한번 말씀해볼까요? 우리 이상훈 선생님

이상훈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가물가물해지기 시작 할 쯤인데, 이제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을 듣고 뭐 때문에 했는지 돌이켜 보니까. 저는 영상 중에 이 한빛 PD라는 이제 분의 얘기를 좀 많이 공감하고. 그전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공감했어요. 제가 하는 업무가 영상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갔던 것도 사실인데. 왜 방송 현장의 노동자들은 늘 좀 이렇게 감내를 하고.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영상을 제작하던 가운데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좀 뭔가 더 나아간 사람들에게. 뭔가를 조금 더 보여주고 싶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지면. 환경이 노동자의 환경이 일부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바람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센터에 들어오게 됐는데, 막상 실제로 해보니까 행정 업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고 기획했던 것보다는. 밥 먹을 때 야근 식대로 행정업무로 4개씩 썼던 게 기억이 나요. 영수증을 잘못 썼던 기억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정훈

고 이한빛 PD를 이제 또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단도 만들어졌고. 또 우리 센터에서도 그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방송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결과물은 스크린 또는 이게 화면으로 송출이 되잖아요. 근데 화면 너머에 있는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이 사실은 일을 하고 있죠. 그 결과로서 이제 이 영상물의 콘텐츠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사실 아까 우리가 숨어 있는 노동, 그림자 노동 등등 여러 가지 노동을 얘기하지만. 이 방송에 이게 미디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사실 그 제작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 노동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시상식 같은 데 보면, 스태프들한테 결국에는 감사 인사를 하지만. 정말 그 게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의 노동들이 좀 더 많이 좀 알려지고

부담감들이 좀 개선이 되고 그런 역할들을 좀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행정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지만, 간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아이디어 제안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또 받아가지고 영수증을 밥 한 끼 먹는데 서류를 4개씩 만드는 건 너무 부당하잖아요. 모아가지고 하든지 그런 좀 좋은 아이디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정우 선생님은 센터에 들어올 때 어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박정우

저는 생생이 기억에 남네요. 제가 사실은 이제 입사를 약간 오늘 아침에 이제 국장님한테 여쭙봤는데, 재수를 했더라고요.

이정훈

두 번째 만에 했어요. 대단하시네.

박정우

2017년에 한번 지원을 했고 그때 이제 신태중 의원님한테 밀렸고. 제가 그 다음에 재수를 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너무 밀릴 만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알게 된 거는 학교 후배 중에 하나가 창립 멤버였고. 근데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여기에 들어올 때, 연구부서가 있다. 그 당시에 저는 석사 졸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고. 그래서 그런 데가 있냐 그럼 나도 좀 그런 데가 자리가 나면 나를 조금 알려달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 저는 주로 돌봄 노동자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그 당시에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오기 전에 국회의장실에서 청년 실업이나 노동시장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이렇게 쪽 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업무도 사실은 조금 지루한 면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연구 자체가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고. 연구 그 자체의 가치라든가 그런 통찰력 있는 결과를 이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을 하더라도. 어떤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제 활용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전 여자친구 현 와이프님께서 이제 연구부서가 여기 낫다 그래서. 이제 근데 보니까 조금 당신은 좀 맞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한번 지원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근데 여기 내가 지금 했던 건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수의 꿈을 갖고 지원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좀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건 사실 연구가 연구 그 자체에 머무르기보다는, 사업

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화되고 다시 사업이 연구로, 이렇게 선순환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막연하게나마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훈

예 또 재수생이 계셨군요. 몰랐던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인연이 또 닿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무시하게 경쟁률이 높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도전을 끊임없이 하는 곳이다 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인연을 맺어서 지금 6년 이상 지금 계시니까 참 의미가 깊네요.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경화 선생님 어떠세요?

정경화

저는 2017년에 장교 쉼터에서 이동 노동자들과 함께 처음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북창쉼터로 바뀌었죠. 거기서 일을 시작했고 6개월 동안 일을 하고, 다시 센터에서 채용 공고가 나서 다시 또 거기에 응해서 그때부터 2018년 2월 거의 같은 시기부터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구로공단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서 계속 이제 노동자의 삶을 계속 살고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콘서트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제출했던 입사 지원서.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이걸 한번 쪽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제가 6년 전에 노동자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나누고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서 6년 동안 그 기대대로 제가 활동했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성찰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

두 번을 합격하신 거네요. 간사로 한 번 합격하시고 누구는 두 번 지원해 가신 거 감사합니다. 서울대 두 번 들어간 사람하고, 그런 재미있네요. 축하드립니다. 두 분 악수 한번 하십시오. 좋은 인연이네요. 그러면 우리 가장 최근에 합격의 영광을 안으신 우리 남운도 노무사님 어떤 기대가 좀 있었습니까?

남운도

우선은 제가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예전에 온라인 서울노동아카데미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메일노동뉴스를 보다가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그때 강의를 몇 개 들었어요. 여기에 계신 박정우 선생님이 하셨던 상담자 교육을 본 적이 있고, 또 제

가 선재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권동희 노무사님의 선재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고, 제가 실제로 권동희 노무사님이 강의하셨던 과로 산재 사건을 제가 수행을 해가지고 승인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끈기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겠다는 마인드를 갖게 된 게 그 교육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이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우연히 알게 되었고. 또 제가 마침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마침 또 공고가 있어서 또 이렇게 이거 하나의 또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곳이라면 제가 좀 보람을 느끼고 좀 열의를 갖고 여러모로 좋은 일을 할 수 저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정훈

잘 돌아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메일 거동 뉴스에 우리가 광고를 할 때 굉장히 우리 예산상으로 볼 때는 꽤 비싼 금액입니다. 그래서 선뜻 이 돈 내고 광고하면 누가 보나 정말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을까 이랬는데 오는 사람이 있는 거네요.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박정우 선생님 등장하네요. 상담자 역량 강화 교육을 또 받고.

이상훈

제작을 제가 했어요.

이정훈

제작도 또 우리 이상훈 선생님이 하시고 멋집니다. 이건 전혀 연출된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또 우리 권동희 노무사님 산재 쪽에 또 굉장한 실력자이시자 대가여서. 아마 꽤 많은 영감을 좀 받으셨을 텐데. 또 끝까지 성공을 또 하셨다고 하니. 그 또한 대단한 경험이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권익센터에 오셔가지고도 지금 많이 활약을 하고 계시죠? 어떠세요?

남운도

상황이 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하려다가 못하면.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정훈

시간이야 충분히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되죠.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 질문을 한 개 더 드려볼게요. 센터에서 일하면서 고마웠던 순간과 그다음에 아쉬웠던 순간 두 가지를 같이 좀 물어볼 텐데. 대비해서 말씀을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센터에서 일하면서 고마웠던 사람 또는 고마웠던 상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좀 아쉬웠던 점 후회됐던 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정리가 좀 필요하니까 누구부터 하면 좋을까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우리 정기창 선생님 센터에 계시니까 한번 센터로 출발하겠습니다.

정기창

우선 고마운 거라고 하면, 저랑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허리가 좀 별로 안 좋아서 무거운 걸 잘 편인데, 저희 센터에는 때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생수가 오고 겨울이면 핫팩 박스가 오는데. 아시겠지만 그 두 개가 상당히 좀 무거운 거라서. 모두 그것들을 좀 받으려면, 육체적으로 좀 힘든 일들인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허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저는 이제 입으로만 여기 어떻게 저기다 넣으세요? 그냥 이렇게만 하고 제 몸까지 진짜 아무 벽 없이 묵묵히 그것들을 같이 좀 옮겨주시는 저랑 같은 시간 때, 근무하시는 분이 이름을 호명을 하고 싶는데 방승범 간사님, 김주현 간사님. 그리고 지금 쉼터사업팀장으로 있는 이성종 팀장님. 그리고 잠깐 저희 심사서 같이 일했던 운영지원팀의 박종만 팀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꼭 전하고 싶고요.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올해 좀 아쉬운 게 좀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동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좀 알리고자, 2022 이동 플랫폼 보도 사진 공모전을 좀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호응도 되게 괜찮았고. 그다음에 성과도 꽤 좀 좋다고 평가 나왔었거든요. 저게 진행하셨던 변정운 선생님도 계시는데, 근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예산이 많이 거의 삭감돼서. 특별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없었고. 하반기 때는 인원도 좀 조정이 돼서 할 수 있는 인원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유야무야 아무 얘기가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노동 현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것들을 올해 못한 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운.

이정훈

그러니까 좋았던 점, 고마웠던 점은 동료분들.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지휘 감독만 계속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몸을 많이 쓰셨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밥은 좀 사셨나요?

정기창

그래서 커피로 드시는 커피로 계속 대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년 되면 아마 밥을 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정훈

그리고 이제 사진이 공모전이 꽤 반향이 있었죠. 지난번에 해서 그래서 대전에서도 막 하고 사진 공모전을 그래서 많이들 지금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 노동권익센터가 아주 고유의 것은 아니지만 어디서나 다 할 수 있죠. 사진 공모전도 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을 잡아서 이동노동자들의 현장 사진을 또 의미를 조금씩 담아서. 아주 그냥 전문가의 사진은 아니지만 아주 투박한 솜씨로 사진을 만들고 제출하고. 거기에 의미를 달고 이런 과정들이 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게 조금 명맥을 이어 가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정경아 팀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정경화

저는 고마운 분들은 여성 센터장님들인데요. 저희가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달도 걸르지 않고, 여성 센터장 회의를 해왔거든요. 근데 센터장님들이 각자 다 자기 역할을 자발적으로 다 맡아서 굉장히 세심하게 무슨 행사를 해도 그렇고. 회의를 해도 그렇고. 다 나눠서 역할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권수정 시의원을 만난다든가. 나인경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을 만난다든가. 또 김지희 동부권 직장암 지원센터 센터장이 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여성 리더들을 만났었는데. 저희 센터장님들만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잘 못 뵈는 것 같아서. 너무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냈거든요. 이번에 서울시에 직장 내 괴롭힘 조례 개정도 해냈고. 양성평등 교육도 두 차례 해냈고. 다양한 그런 걸 자발적으로 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자주 저희가 이제 속상하고, 그러면 좀 술도 마시고 그러면 아침에 되게 숙취가 심하잖아요. 근데 저희 가보면 헛깨나무 차도 있고, 숙취에 좋은 히비스커스 차도 있고. 이런 데서 항상 챙겨주시는 운영관리팀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건물이 전태일기념관에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아마 조류 친화적인 건물로도, 이 건물이 이렇게 기사화되고 했었는데. 아침에 제가 제일 일찍 출근합니다. 매일 그러면 출근하면 자주 아주 빈번하게 왜가리가 전태일 편지에 이렇게 앉아서. 항상 자주 와 있어요. 위치를 달리하면서. 그래서 전태일 열사는 그 편지들까지도 저희 새들한테까지 이렇게 쉼터를 제공해 주시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청계천 가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 센터 센터를 찾아주는 노동자들도 그런데. 새들조차 이렇게 와주고 해서. 저는 그 외가리한테도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안타깝고 아쉬운 거는 거짓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거짓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두 번째는 그럴 듯한 거짓말, 세 번째가 통제라고 하더라고요. 통제를 이렇게 만지작거릴 수 있잖아요. 의도에 따라서 다. 근데 저희 노동센터들의 모든 그동안 해왔던 성과와 활동들을 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만 하고 해서. 지금 서울의 노동 센터들이 계속 축소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인권이나 노동 감수성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계속 목격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슬기로운 노동자 생활이라는 이제 서울시 노동센터들을 종합 안내서를 2020년에 한 번 2022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발간했는데. 사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지만. 내년에도 이거 발행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어떤 평가 지표를 우리 그냥 정량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잣대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 이런 걸 못 만들어낸 게. 저는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많이 속상합니다.

이정훈

여성센터장 협의회가 굉장히 정기회의를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그 결과물들이 계속 센터장 협의회 탈방에 올라오는데. 꽤 구체적인 이제 사업들을 많이 좀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센터장 회의를 하기 전에 다 모이면 이 성평등 관련한 영상물을 꼭 의무적으로 시청을 하고.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 그 제도를 만들었어요. 여성센터장협의회에 의해서. 그래서 항상 돌아가면서 이제 영상물을 선정하고, 그걸 소개하고 관련된 이제 인식 교육을 좀 하자. 그렇게 제안을 주셔서 했던 그 기억도 좀 많이 나고. 그게 이제 일종의 의례화돼가지고 그거 안 보면 좀 이제 허전할 정도의 그런 이제 이벤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자리에 굉장히 새를 사랑하시는 사진으로도 남기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태일 기념관에 오셔서 한번 또 외가리에 한번 출연하는 장면을 멀리 가지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더라는 말씀드리고. 서울시 정책들이 이렇게 계속 좀 허물어지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움을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센터 감성노동센터의 상담자 선생님들과 좀 얘기를 나눠봐도.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이렇게 쪼그라들고. 내 재산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내 팔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만큼의 그런 이제 안타까움과 고통을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되는 곳들은 이래서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딱 그 얘기를 공통적으로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좀 해봅니다. 남

운도 선생 좋았던 점과 서운했던 점은?

남운도

예 없어요. 너무 짧아서

이정훈

아니 그래도 저 사람은 좀 싫은 것 같아. 이런 사람 없어요?

남운도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시간을 좀 지나면, 한 수만 명 나올 것 같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뭐

이정훈

한 2개월만 더 계시다가 저한테 재는 안 될 것 같아요.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운도

따로 얘기 드릴게요. 저는 이런 뭐지 다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같이

이정훈

출마하세요?

남운도

아니요 아니요. 걱정도 많이 있긴 있지만 다른 분들이 다 잘해주셔가지고 이거. 진짜예요. 잘해주셔가지고

이정훈

이남신 소장님이 잘해주던가요? 그 약간 이때 그걸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남운도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정훈

그 부분하고 연결시키면 되겠네. 이남신 소장님한테 딱히 드릴 말씀은 없다. 편집할 때 그렇게 하잖아 편집할 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도 제가 느낀 바로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센터에 적응을 빨리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 생각해 보면 4개월 차 때 막 방황하고 그랬거든요. 막 괴로워서 담배 피우고 막 술 먹고 막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또 우리 이상훈 선생님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이상훈

아쉬웠던 점은 저도 좀 비슷해서 사업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가장 공감이 돼서. 이걸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고마웠던 점을. 저는 조금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전에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고마웠던 점 얘기할 때가 저도 많이 고민이 됐거든요. 실무자들. 그러니까 모든 센터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직장을 다니건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제가 이 질문을 듣고 나서 회사에 제 라이프를 하나씩 짚어봤어요. 내가 휴가 쓸 때는 누가 뭘 하고 있지. 내 자리를 뭘 대신하고 있지. 근데 주변 동료들이 대신 전화를 받으니까. 또 제가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야근을 해도 똑같이 대체휴가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해주느냐 보면 운영팀에서 관리를 해주거든요. 제가 탕비실만 가도 제가 탕비실에 약간 귀신처럼 많이 막 이렇게 과자를 많이 집어먹는데, 그걸 누가 해주는지 보면 타 운영팀이 하고 있고. 운영팀이 아니더라도, 다른 동료들이 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다 같이 하고. 이러면서 느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사람을 한 명만 뽑는 게 아니라. 저는 센터에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 내가 뭔가 나만 고생하는 거야 나만 일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 하나하나 내 발자국마다 누군가가 같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마운 사람을 표현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진짜 모든 직원 모두에게 고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실제 생활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하면서도 다 동료들이랑 얘기하잖아요. 동료들이랑 얘기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아쉬웠던 점에서 뭔가 나간 사람들 같이 얘기를 이제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이. 조금 아쉬움이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정도가 좀 아쉬운 느낌이었습시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노동의 어떤 발자취를 봤던 것 같아서,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던 기억이어서. 이런 자리가 또 마련이 됐으니, 제가 이런 발언할 기회가 됐으니.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자연스럽게 박수를 쳐야지. 역시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답게. 나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는

등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하나 업혀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서로의 이렇게 에너지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들이 모여서 이 나도 모르게 해결이 나고. 나의 공백이 자신도 모르게 메워져 있고. 그런 이제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해보게 됩니다. 그중에서 요령 피우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뒤편까지 우리가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또 좋은 기운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서로의 동료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잘해온 것 같아요. 양 센터의 상담자 선생님들이 그래서 더 기운이 나고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정우쌤은 어떠세요?

박정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팀도 그렇고. 다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탱하고.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운영팀 그리고 소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한비네에서 오셨던 분들도 그렇고. 또 자치구 센터에서 같이 이렇게 협업했던 그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노동권익센터의 역할이기도 했지만. 또 지탱이기도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이 자리에서 비로소 사실은 잘 이제 평소에 같이 오랫동안 같이 해왔지만, 감사 인사를 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 이제 팀분들한테 조금 가장 이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이철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항상 이제 팀을 좀 이끌어주시고. 약간 든직함이 있고. 또 맛집이나 이제 업무에 대한 빅데이터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하고 계시고. 개인적으로는 연구자 선배로서 또 많이 이제 조언이나 나아갈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감사드리고. 신태중 팀장님 물론 이제 저를 이제 밀어내셨지만.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저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어떠한 사실은 이제 신태중 팀장님한테도 많은 걸 배웠는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정말 그거에 대해서 항상 의지를 잃지 않고 굉장히 의연하세요. 또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나. 그리고 또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혜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 뒤에서 또 이제 막 바삭바삭하면서 일을 하는 저 유립 쌤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사실은 이제 저분께서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굉장히 뱅크세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조직 분위기 같은 것도 굉장히 밝게 만드는 굉장히 이제 매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조직에서 또 힘들었던 암흑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 분을 통해서 참 많이 깨달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좀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또 이제 아쉬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긴데. 이제 아까 이제 입사할 때 기대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이제 연구 부서와 사업 부서 이런 부분들에서의 시너지 효과 이

런 부분들을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좀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협력과 피드백 이런 것들이 그런 장치들이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쉽고. 그리고 자치구 센터와 같이 이렇게 연구 수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중에서도 사실은 연구가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냉철하게 생각하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조율하고 이리려고 노력은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했고. 그런 최근에 이제 시로부터 이제 부서에 대한 안 좋은 피드백이 올 때마다 사실은 그거에 하나의 빌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이제 들었고. 최근에 이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과연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이런 규모나 이런 기능이나 입장을 볼 때 과연 연구 부서가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있는 건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좀 회의감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는 좀 우울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믿을 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특히 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훈

그렇습니다. 이 연구 아까 근데 우리 박재철 의장님이 토론에서도 얘기해줬고. 또 홍윤경 센터장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서울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그건 굉장히 좀 대단한 거다. 근데 이제 막상 우리가 당하는 이 상황들은 시의 한두마디의 말과 몇 안 되는 의사결정에 의해서 되게 큰 가지가 이제 출렁거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힘 빠지게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10년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특히 연구 파트에서는 실제 우리 노동권익센터가 생기지 않았으면, 그 분야의 연구를 과연 누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안을 만들고. 이 문제를 부상시킬 수 있었겠느냐 생각해 보면 되게 이제 힘든 일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야될 곳들은 널려 있고. 그러니까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가 이제 정책 기능을 시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져갈 수 있으면, 제일 고마운 일이죠. 근데 분명히 다시 이제 우리들한테 그런 요구들을 다시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철 국장님의 맛집 지도는 우리가 길이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유산으로 등재해서 우리가 좀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조금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방금 우리는 비정규노동센터가 이제 제안서 PT를 하러 갔다가 제가 피티를 했지만. 이제 영광스럽게 우리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엔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는지. 여기에는 우리 제안서 작업 때 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시간이 바빠서 같이 참여하지 못

한 분도 계시지만. 어떤 사업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제 왼쪽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센터에서 먼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우리 이상훈 선생님부터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상훈

제 사업의 연장에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 안에서, 그다음에 영상 제작 안에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저는 아직 다 사업이 마치지 않아서 편집 중인 것도 있고, 제작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어서 연결돼서 좀 더 노동자의 얘기를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해보고 싶고. 교육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좀 성과나 아니면 숫자를 위해서, 또 하는 영상 제작이 있거든요. 제 사업 중에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의미 있고, 좀 같이 얘기를 해볼 만한 것들을 조금 더 제작하고. 그 교육들을 시민들에게 조금 더 알리고 싶은 사업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정훈

좋습니다. 이제 통합이 되면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양 센터 그리고 또 더 확장하면 권역별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같이 또 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아이디어와 아마 이야기의 소재들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적극 활용해야 이제 이 시너지라는 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남운도 선생님 어떤 걸 해보고 싶어요?

남운도

일단은 제가 생각해봤을 때, 최근에 이제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제가 다는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산재 쪽으로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엄청 그게 막 활발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사업이라는 게 그냥 뜬금없이 딱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를 잡고 이래야 제대로 되고 이런 것들 해서

이정훈

누가 그런 그따위 소리를. 틀을 잡고 언제 틀 잡고 언제

남운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훈

특고 산재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데들이 많이 없어요.

정기창

그렇죠

이정훈

그러니까 여기는 깃발 꽂으면 그 사람이 임자가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아이디어를 생각하셔가지고, 말이 되게 짝 만들어 놓으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예전에 그 개인 파산 회생 아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을 때 많은 변호사 법무사들이 그 사업을 다 싫어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뭐 이게 돈이 되겠냐. 이러면서 기피를 했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 수험생 한 명이 자기가 자료 정리를 다 떠미니까. 그걸 계속 자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개인 파산 회생 전문 법무사가 됐어요. 우리나라 사건을 그 사람이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모를 일인 거지. 그러니까 이 특고 산재는 꼭 우리가 돈이 된다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분명히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의 억울함이 풀리고 내가 일하다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받지 못하다가, 조력을 받아서 그게 해결이 나는 그 일이 생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사실상 이게 복잡하고 성공 가능성이 낮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하려고 들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하면, 그게 우리의 또 다른 사업의 꼭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기창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정기창

예 저는 사업의 제한이라기보다는 일단 좀 바람이 좀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예 산이 대폭 삭감이 되면서, 사업들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쉼터에 오시는 이용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러다가 쉼터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린 어디로 가냐 이러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그래서 제가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동노동자 쉼터의 필요성은 어느 정

도 검증됐다고 보고요. 이게 효율성의 잣대라든가. 아니면 정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또는 집권정당이 바뀌어서 쉼터의 존재론이 거론되거나. 이런 게 좀 없이 뭔가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기존 노동자분들한테 쉼터든 아니면 역량 강화든. 이런 교육 서비스 각종 서비스들을 좀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이정훈

좋습니다. 쉼터를 처음 개설할 때 시가 이 노동권익센터한테 미션을 사실은 줬죠. 주고 굉장히 이제 힘들고 그다음에 관리도 어렵고. 또 여러 문제도 터질 게 눈에 뵈어나니까 자기들이 이제 잘 하지 못하고 전문 기관에 맡기는. 그야말로 그때 틀을 쓰는 거예요. 그런 틀을 만들어서 이제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맡게 됐는데. 1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나간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성과와 또 한계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현장과 우리 쉼터 간사님들이 거기에서 답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고. 우리 비정규노동센터에 또 계셨던 여러 분들이 이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같이 좀 연대하면서 힘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우쌤은 어떤 걸 해보고 싶어요?

박정우

사업적인 것보다 이제 뭔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자면, 사실은 이제 감정센터가 저희랑 있을 때. 입사자분들의 제1미션 중에 하나가 이철 국장님이랑 이정훈 소장님을 구분하는 거였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 들어와서 이분이 그분인 거 같은데. 이런 그런 약간의 빅재비가 약간 좀 없어서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남운도 노무사님께서 특고 산재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연구도 사실 저희 연구보고서 쪽에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이 되면 또 규모가 좀 더 커지고 역량이 생기고. 이제 이럴 텐데 지금의 정세야 어찌 됐건 조직 내부에서는 그런 역량이 조금 더 필요해질 것 같고. 또 정세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럼 조직에서는 연구 기능을 계속 유지할 거냐 그럼 연구 기능과 사업 부서 간의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매개체 내지는 정기 협의할 수 있는 장이 조금 더 만들어져서. 좀 더 연구 자체도 실천적인 함의를 갖게 풍부하게 담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

고. 사업 부서도 일상 사업을 하다 보면 하지 못하는 그런 쟁점이나 고민.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연구 부서와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비로소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훈

박정우 선생님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게 아까랑 일맥상통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와의 협업 이런 얘기를 아까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나와서 지금까지는 제가 같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감정노동센터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은 다 열심히 하고 성과가 막 나는데 이걸 섞어가지고 좀 더 새로운 모습에 뭐가 푹 튀어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거까지 하려니까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상황들도 좀 뒷받침이 돼야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또 기회가 있으니 계속 그걸 극복하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 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다른 팀들과 어떤 식으로 엮어서 뭘 새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화 팀장님은 뭘 좀 해보고 싶으세요?

정경화

요즘 지하철 타고 안에 보면 영상 광고 돌아가잖아요. 그것은 혹시 그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순신 장군처럼 갑옷 입고 나온 사람이 아리수 물 이렇게 마시는 광고 보셨어요? 이게 그런 거를 그래서 아리수가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상품화돼서 나온 것 같고. 그러면 사실 그동안 생수 사업 저희가 3년째 했는데. 아리수 물로 왜 안 하나. 이렇게 이제 시의원도 지적도 했었고. 또 저희 내부에서도 좀 이런 플라스틱 병에해서 하는 것도 좀 환경에 지금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가능하면 이 사업을 아리수랑 잘 연결해서. 이동 노동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걸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권한과 역할이 같이 갔을 때, 이 사람이 되게 성과를 내고 스스로도 보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서울 다시 내년부터의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정훈

그 아리수가 협찬이 되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네요. 둘 다 하면 되죠. 기업들 후원도 받고, 아리수도 하고. 그러면 물을 나를 때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 걱정이 동선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을 보관하고 음식 나누고 할 때, 그래야 될 것 같고

계속 얘기만 하니까. 좀 지루한 것 같아서 우리 아까 화면 있잖아요. 우리 쉬면서 영상 봤던 거 그거 우리 집중해서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이 10년의 활동의 역사를 우리 김세규 선생님께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처음부터 한번 썩 한번 보고 완성하고 또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정훈

네 끝났습니다. 이걸 보니까 꽤 많은 활동을 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이정훈하고 이철하고 구분하는 게 쉽지 않겠다 하는 게 좀 느껴지네요. 우리가 봐도 큰일이네. 어쨌든 이 활동 좀 어떠셨나요? 보면서 우리 플로에 계신 선생님들 소감을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의자가 아니라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걸어다닐 수 있어서,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임민창 선생님 톡 콘서트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저 화면도 좀 보고 고리 센터에 또 조금 계셔봤잖아요.

임민창

영상 보면서도 좀 낯익은 얼굴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셨구나. 생각이 좀 들었고. 저렇게 열심히들 하셨는데. 이제 조금 뭐랄까 다들 아쉬운 마음이 한켠에도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하신 걸 들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좀 저 역시도 마음 한편이 조금 아쉬운 마음이 좀 더 커지는 것 같고요. 정말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셨다. 애 많이 쓰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훈

오자 토크는 뭘 로 하셨어요?

임민창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정훈

그러면 즉흥적으로 한번 할까? 네 괜찮아요?

임민창

어떤 걸로 성경에 있는 표현이. 그냥 카피하겠습니다. 한알의 밀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정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정노동센터 이 정도 불시에 이렇게. 전혀 연출을 하지 않는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또 갈까 봐 긴장하신 분들은 이제 안 갈 테니까 긴장 푸세요. 다 끝났습니다. 상황 해제하겠습니다. 토크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국으로 생방송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정말 잘 만들어요. 잘 만드는데 널리 알리는 거에 너무 이제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론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최종 결과 보고회라든지 할 때 보면 내용이 정말 실하거든요. 정말 알칩니다. 그리고 캠페인이라든지. 홍보 교육 이런 걸 보더라도 되게 좋아요. 일단 그 무슨 마케팅 차원에서 은행이나 퇴직연금이나 이걸 끼워서 하는 교육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대변에 알잖아요. 만드는 것까지 너무 잘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짹 알리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획기적이었으면, 어떨까라는 그 아쉬움을 늘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10년은 우리가 발전하는 그 10년이었다고 하면. 앞으로의 10년은 그게 이 효과를 발휘하는 외부에 좀 더 많이 알려지고 이런 고생과 수고와 이런 노력들이 정말 이 한알의 밀알처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알림이 좀 더 많아지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 6명 앉아 있고, 막 10명 앉아 있고 이런 걸 보면 너무 속상하거든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 고생한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고생이 정말 이제 빛을 좀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에 있는 노동 센터들도 똑같은 고민들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과 이 아이디어를 많이 좀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또 우리가 통합센터로 나아가면 모두가 또 한마음으로 뭉쳐야 되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마음 모아서 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별 질문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정경화 팀장님께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노동자 이동 노동자 생수 나눔 캠페인을 했는데, 이 기획하고 실무 준비하면서 꽤 많은 이제 에피소드가 좀 있었을 것 같아서. 어떤 좀 뒷얘기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해주면 어떨까 하는 질문입니다.

정경화

요즘에 공정 감각이라는 책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데요. 나운경 교수님이. 연대 교수님이시고 그전에 이제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님이실 때 저랑 같이 둘이 이제 강진으로 이제 여행을 둘이 기차여행을 가는 그게 2020년 2월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원래 교수만 하다가 기관에 이제 기관장으로 가니까. 이러저러한 에피소드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막 해 주시면서, 한 가지 얘기해 준 게 양성평등교

육진흥원 이제 불광동 저쪽 높은 데 있잖아요. 건물도 좀 높고 그래서 거기에서 택배 노동자들. 그리고 이렇게 직원들이 저녁에 야근할 때 보면 음식을 시켜 먹는데, 그 배달 노동자들이 그 시간이 돈인데 맨날 엘리베이터 눌러가지고 가서 또 배달하고. 또 그릇 가지러 수거하러 오고, 이런 걸 보면서 본인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전 직원의 동의를 구해서 1층에 택배함을 놓고 거기서 찾아가는 걸로. 그리고 음식도 전화해서 1층에 직원들이 내려가서. 음식을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택배함도 저는 기발했지만 그 옆에 온장고가 2월이었으니까 추웠는데 온장고가 있었고. 거기에 택배 기사님 따뜻한 음료 생수 챙겨드시고 온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써서 붙여서 그 안에 따뜻한 음료를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이디어가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여행 끝나고 오자마자 이제 저희가 5층에서 일하는데 6층에 그 당시에는 이수호 관장님이셨거든요. 이수호 관장실에 찾아가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이러이러하게 이런 일을 하신다는데, 우리 전태일 기념관도 좀 1층에 그런 거 두자 그랬더니 바로 시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3월부터 그런 함이 저희 택배 지금도 아마 저희 1층에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서 있을 텐데 노동자의 사람이다 이렇게. 그게 이제 그게 저한테 사실은 제일 큰 사업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5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토론회 갔을 때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생수를 좀 나눠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게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3년치 이렇게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です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또 한 번 이제 2020년 첫 해에 3시에서 이렇게 11 아니야 만 1700평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그걸로 처음에 지원을 했어요. 여름에 근데 이제 그거를 기사로 접한 롯데칠성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자기들이 대한적십자사에 지원했던 양이 22만 4천 명이래요.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걸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삼다수가 아니라 자기네 걸로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걸 저희가 사업 계획을 했고. 추석 때 그러니까 저희가 여름에 이제 8월에 배포했으니까 추석 때 이걸 하자고 해서 각 센터별로 다 신청을 받았더니. 한 3500명도 3만 5천 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만 4천 병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소화가 안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 다 이제 신청까지 마무리됐는데 몇몇 경제지에서 아이시스 롯데 칠성 음료 생수 이름이 아이시스거든요. 아이시스 수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기사를 낼 거예요. 근데 그 기사는 그 수질이 문제가 있다는 그게 아니라. 수원이 저쪽 포천에서도 수원지가 있고 저 지리산 산천 쪽에서도 수원지가 있고 이런데. 이제 이름은 아이시스로 나왔다 이런 기사였고. 아무런 수질에 문제가 없는 거였는데. 그거를 저희 몇몇 자치센터 센터장님들이 이거 괜히 배포했다가 수질에 문제 있는 거 쫓다고 욕 먹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다가 저희 쪽에서 아예 롯데칠성 쪽에

연락을 해서 죄송한데 생수 못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제 못 받겠다고 하니까. 사업도 거의 다 진행이 됐는데 너무 죄송했는데. 근데 그걸 계기로 해서 롯데칠성은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사회 복지공동모금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다음 해에는 꼭 롯데칠성하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22년부터 2년째 롯데하고 하고 있고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좀 하여튼 과정에서 되게 구 선매 있다는 거 맞지 심장이 떨어질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얼음물 받으시고 되게 좋아하시는 이동 노동자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정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 생수 나눔 하는 게 사실 그냥 생수 나눔이다라는 의미는 감명한데. 그 뒤에 붙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율도 해야 되고 특히 장님들이 이제 오신다고 인터뷰하고. 신문 기사 낸다고 막 무슨 장 무슨 장 이래가지고 조율 다 해봤더니 또 어떤 장은 그날 못 가네 이래가지고 날짜 바꾸고. 날짜 바꾸고 자리 안 왔어요. 그게 굉장한 이벤트였습니다. 그것도 기억이 나네요. 참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우여곡절을 다 돌파하고. 지금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는 터라서 되게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요. 사실 그때 포기를 했으면 못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는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작은 관찰에서 시작된 이 아이디어가 지금의 생수 나눔으로 좀 이어오는 그런 결과를 냈다라는 게. 되게 이번 에피소드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기창 선생님께 하나 또 개별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하셨던 사진 공모전에 관한 얘기에요. 그래서 출품작도 좀 있었고 수상작 전시회도 우리가 좀 했었는데, 이걸 좀 하면서 시민들한테 들었던 얘기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기창

아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 공모전을 잘 치르고 이제 뭔가 좀 아쉬워서. 저희 쉼터 내부 저희 쉼터를 포함해서 5개 쉼터에서 전부 다 이제 그 사진들을 배포를 해서 수상작들을 이제 일정기간 동안 같이 이제 전시를 계속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아쉬움이 났더라고요. 왜냐면 쉼터에 오시는 분들만 이제 이걸 보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양화로 전시회라고 뭔가 거창하게 이름을 좀 붙여서 전시를 좀 더 연장을 했는데. 저희 쉼터 앞에 있는 인도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해가지고 다 전시를 좀 했는데. 워낙 이제 외부다 보니

까 날씨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잘 못하다가. 저희 쉼터 근처에 이제 교봉구 합정점이 있는데, 그 지하에 전시관이 있는데, 제가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임대료를 한다고 이제 붙여 있길래.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해서 딱 요맘때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이제 임대료를 해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늘상 할 수 있는 거죠. 조명도 이렇게 막 스팟 조명 다 받아가지고 되게 정말 전시회처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사진뿐만 아니라 이제 쉼터 홍보물도 같이 이제 비치했었는데. 이제 오고 갈 때마다 보면 이제 홍보물이 점점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시민들이 이제 많이 보시긴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낮에도 점심 먹고 이제 공보물 비치를 다시 하려고 갔는데 딱 이제 그날 젊은 여자분하고 자녀분하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해될까 봐 조심스럽게 이제 조용히 홍보물 갖고 왔던 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관계자냐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사진에 있는 분들이 다 너무 힘들게 보인다고. 너무 힘들게 일하신다고 자기가 굳이 생각해보지도 않았지만. 설령 했다 한들 이 정도까지는 잘 몰랐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전시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잘 알게 됐다고. 실제로 직접 만나뵙고 말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택배 기사님이라도 보게 되면 말이라도 좀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다고. 이런 사진전 좀 더 연장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까지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이렇게 이동 노동자분들한테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이렇게 마음을 지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양화로 전시회를 기획하면서 사진전의 애시당초 목적이었던 일반분들한테 노동의 현실을 좀 알리고자 했던 것들이.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던 게 아니었나 그런 일이 좀 있었었습니다.

이정훈

예 여기도 박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 한 장이 주는 일종의 울림은 또 굉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또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진에 담긴 의미를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이 주는 효과가 또 아주 두꺼운 책이 주는 그 효과보다 훨씬 더 나을 때가 있죠. 택배 기사님들이 본인의 차에서 정리하는 거 정도만 볼 뿐이지, 산적해 있는 거를 이제 배분하는 것들을 보신 적은 별로 없는데. 저희 수상작 중에 산더미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들을 혼자 이렇게 배분하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하고 오토바이 라이더 타시는 분들이 정말 눈 때문에 하얗게 눈살이처럼 돼 있던 사진이 있었는데. 그 2개를 유심히 보시더니 그렇게 하시더라

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영상 스텝하고도 비슷한 거죠. 일단 집에 배달이 오면 그 결과물로서 우리는 받아보는 거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많은 일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좀 보여준 것 같아서 아이디어이긴 한데 노동권익센터에 있는 을지로 삼가 거기 여기 쪽 복도에 이미 무슨 미술품 이런 거 전시 좀 돼 있잖아요. 그거 좀 기간 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전시하면 겨울철에 사람들 글로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추우니까 그래서 거기가 좀 유동인구가 약간 늘어나는 시기라서.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제가 했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 중에 수탁기관 새로 들어오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이제 플로우에 질문을 안 드린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것도 급습을 또 하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멀리서 오신 분한테는 마이크를 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동 때문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대전 센터에서 홍춘기 의장님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모시고 잠깐 소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

네 반갑습니다. 대전시 노동권익센터장이고요. 홍춘기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 7월 1일 날 설립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조금 일찍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만들어졌고. 아까 박재철 센터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희들도 처음에 3명이 시작을 했고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영향으로 지금 7명으로 늘어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었고. 또 심터도 저희가 작년 말에도 계속 할 수 있었고. 또 이 얼음물 지원 사업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올해 확대되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었고. 이런 것들이 서울 노동권익센터가 서울에서만 역할이 아니라 전국적인 역할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전국에서 위치 알고. 입으로 느끼고 있고 어쨌든 10년 역사를 딛고 좀 더 전진할 수 있는 권익센터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 길에서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한 일들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일종의 또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죠? 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대전이 열심히 하는 또 일들은 또 서울이 배우고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되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이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좀 더 진하게 이 선을 만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예정된 프로그램과 준비된 질문들을 거

의 다 소화를 했습니다. 우리 출연하신 선생님들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 선생님들 여기 계속 앉아 계시면 조금 꿀핍하기도 하니까.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내려가서 앉아서 같이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 큰 박수 일단 보내드리고. 의미 있게 답아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남운도 노무사님은 또 이렇게 제가 조금 짓궂게 했지만. 또 이해를 많이 해주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념 촬영 우리끼리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일어서시죠.

www.labors.or.kr

(0319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관수동 152-1)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
대표전화 02-6925-4349, 상담번호 1661-2020

^^^
서울노동권익센터